

지표는 13개 부문 27개 핵심지표와 29개 지원지표를 제시하였으며, 삶의 질 지표는 7개 부문 6개 핵심지표와 11개 지원지표로 제시하였다. 도시서비스 지표는 교육, 화재 및 긴급 대응, 건강, 레크리에이션, 안전, 고형폐기물, 교통, 폐수, 물, 전기, 재정, 거버넌스, 도시계획으로 제시하였으며, 삶의 질 지표로 시민참여, 문화, 경제, 환경, 주거지, 사회 형평성, 기술로 제시하였다.

6. 시사점 도출 및 연구 차별성

생태문화도시를 생태도시와 문화도시의 통합적 비전으로 생태문화도시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, 정책추진 방향에서 물리적 수단에 치중해 있는 현재 생태도시계획의 일반적 오류를 보완하고 생태적 문화의 형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

생태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및 조경 분야의 생태(친환경)도시 지표연구를 통해 사회·문화적인 요소가 대체로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또한, 생태도시의 기준이 되는 계획지표에서도 주민참여나 문화적인 요소는 물리적인 시스템의 구축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관련 지표 분석에서는 생태도시, 생태도시 계획지표, 그린시티, 저탄소 녹색도시,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 등 에너지, 녹색교통, 물순환, 생태축 및 녹지네트워크, 환경관련 위원회 등 물리적인 부문과 에너지 분야의 지표들이 대부분 제시되었으며, 문화, 사회,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는 그 비중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. 국외관련 지표에서는 GCIF의 도시서비스와 삶의 질 지표를 제외하고 탄소저감, 에너지 절약, 건축물 효율, 교통, 물사용, 쓰레기 처리에 관한 지표로 주요 지표로 제시되고 있었다.